

1873년 3황제동맹은 유럽에서의 패권을 노린 도이칠란드통치배들의 침략적외교산물

리 창 국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교시하시였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군사빨력은 세계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는 항시적인 요인입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적군사빨력이 존재하는 한 국제긴장상태는 계속 격화될것이며 결국에 가서는 새 세계전쟁을 가져오게 될것입니다.》(《김일성전집》 제75권 455페이지)

1873년 도이칠란드통치배들은 저들의 대외전략을 세우는데서 프랑스를 타승하고 유럽에서 패권을 장악하기 위한 실제적인 조건을 마련하기 위해 프랑스를 경제하면서 프랑스와의 전쟁에 대처하여 무력증강에 힘을 넣는 한편 동맹자들을 규합하기 위한 외교활동을 적극 벌어나갔다.

그들은 특히 오스트리아-마차르와 로씨야를 쟁취하여 그들과 동맹관계를 형성하는것을 최우선적외교과제로 내세우고 여기에 힘을 집중하였다.

도이칠란드통치배들은 도이칠란드, 오스트리아-마차르, 로씨야 세 나라사이에 3황제동맹을 체결하기 위한 침략적계획을 세우고 두가지 목적을 실현하려고 하였다.

그것은 첫째로, 자기의 적수인 프랑스에 압력을 가하여 그를 고립시키자는것이였다.

프랑크푸르트 암 마인강화조약체결후 도이칠란드정부의 대외정책의 기본방향은 프랑스가 국제적으로 철저히 고립되게 하며 강국으로서 다시 추서지 못하도록 하는것이였다.

전쟁으로 말미암아 프랑스의 경제와 재정이 심히 파괴되고 군력도 심히 약해졌으며 게다가 프랑스에는 전승국인 도이칠란드군이 주둔해있었다.

그러나 도이칠란드통치배들은 프랑스가

계속 현재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있지 않을것이며 반드시 복수할 기회를 노리면서 실력배양의 길로 나갈것이며 앞으로 어느 한 대국과 동맹을 맺기만 하면 유럽에서 결코 무시할수 없는 위험한 세력으로 등장할수 있다고 생각하였다.

당시 프랑스의 지배층내부에서는 드브로이 및 데까즈를 위시한 왕당파와 강베파를 비롯한 부르조아공화파사이에 정권장악을 위한 권력싸움이 복잡하게 벌어지고있었다.

그러나 그들은 다같이 한가지 점에서는 공통된 립장을 취하고있었다. 그것은 프랑스가 절대로 도이칠란드와 1대1 단독으로 싸워서 안되며 반드시 동맹자를 얻어 공동으로 맞서야 한다는것이였으며 또한 그 누구도 군력이 약한 나라와 동맹을 맺으려 하지 않으므로 빨리 프랑스자체의 군사력을 회복하는데 모든 힘을 돌려야 한다는것이였다.

이로부터 그들은 군사력을 키우는데 힘을 넣는것과 함께 국제무대에서 동맹자를 구하는데도 적극 달라붙고있었다.

한때 《국민방어정부》의 외무상이였던 줄파브르는 비록 로씨야황실과 도이칠란드황실사이의 관계가 매우 친밀하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프랑스가 로씨야와 가까이 지낼수 있는 날이 있을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다. 그는 로씨야와 도이칠란드사이에는 《의심할바없이 충돌을 위한 씨앗이 존재한다. 프로씨야위력의 지나친 강화는 조만간에 그러한 충돌을 야기시키고야 말것이다. 왜냐하면 새로운 도이칠란드제국은 로씨야의 안전을 위협함이 없이는 더는 팽창될수 없기때문이다.》라고 하였다.

줄 파브르의 이 말은 도이칠란드와 로

씨야사이에는 불가피하게 모순이 격화되어 충돌이 일어날것이므로 로씨야와 동맹할수 있다는 전망을 내다보고 이를 위한 외교적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것을 시사한 것이었다.

이와 같은 정세에서 도이쉴란드지배층은 동맹자를 구하려는 프랑스의 시도를 철저히 파란시킴으로써 그를 완전히 고립시키려고 계획하였다.

당시 유럽에서는 프랑스와 로씨야 및 오스트리아-마쟈르의 3국연합이 형성될 가능성이 없지 않았으며 만약 오스트리아-마쟈르가 여기에 가담하지 않는 경우 3국연합까지는 성사되지 못할수 있으나 프랑스와 로씨야의 2국연합이 형성될 가능성은 있었다.

도이쉴란드통치배들은 사태가 이렇게 번져지는것을 우려하면서 먼저 손을 써서 오스트리아-마쟈르와 로씨야를 저들편으로 끌어당기는것이 중요한 문제로 나선다고 판단하였다.

바로 이러한 목적으로부터 출발하여 도이쉴란드통치배들은 오스트리아-마쟈르, 로씨야, 도이쉴란드사이의 동맹을 형성하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었다.

도이쉴란드통치배들이 세 나라사이에 3황제동맹을 형성하려는 목적은 둘째로, 유럽에서 패권적지위를 차지하고 세 나라가 연합하여 유럽나라들에서 일어나는 인민들의 혁명투쟁을 말살하자는것이였다.

도이쉴란드통치배들은 당시 짜리로씨야의 국내정치정세가 불안정한데 대하여 크게 우려하고있었다. 로씨야에서는 짜리정부의 폭압통치를 반대하는 농민대중의 투쟁이 련이어 일어나고있었으며 농민들의 진출에서 영향을 받은 선진적인 로씨야지식인들도 비밀결사를 못고 짜리전제제도를 반대하는 투쟁을 광범하게 벌려나갔다.

구성된 이러한 모든 국내외정세는 도이쉴란드통치배들로 하여금 커다란 불안과 공

포를 느끼게 하였다.

도이쉴란드제국의 재상 비스마르크는 원과 뻘쎄르부르그 및 로마에 군주제를 보존하는것이 도이쉴란드자체의 국가체제유지와 일치되는 과업으로 된다고 말하였다.

도이쉴란드통치배들이 당면한 정치외교적타산으로부터 출발한것은 우선 도이쉴란드에 대한 오스트리아-마쟈르의 적대감과 복수심을 늦추자는것이였다.

오스트리아는 1866년에 있는 프로씨야와의 전쟁에서 패한 후 도이쉴란드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복수할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도이쉴란드가 오스트리아-마쟈르를 세나라의 동맹에 끌어넣으려고 한 의도는 또한 오스트리아-마쟈르지배계급내부에서 친도이쉴란드파와 반도이쉴란드파사이의 대립이 심한 조건에서 친도이쉴란드세력들이 실권을 장악하도록 하자는데도 있었다.

도이쉴란드통치배들은 오스트리아-마쟈르뿐만아니라 령토가 방대하고 인적 및 물적자원이 무진장한 짜리로씨야를 끌어당기는것이 유리하며 두 전선을 펴는것은 불리하다고 보았다.

도이쉴란드통치배들은 저들이 로씨야와 충돌하게 되는 경우 틀림없이 프랑스가 로씨야의 편을 들어 참전할것이라고 보았다.

이렇게 되면 도이쉴란드는 로씨야전선과 프랑스전선의 두 전선에서 동시에 싸움을 벌리지 않을수 없게 되며 이것은 도이쉴란드에 있어서 결정적으로 불리한것이였다.

도이쉴란드통치배들은 저들이 세운 계획에 기초하여 3황제동맹성립에 달라붙었다.

도이쉴란드는 오스트리아-마쟈르집권자들의 로씨야적대시정책을 완강하게 반대해나섰다.

1871년 8월의 가슈타인상봉시에 오스트리아-마쟈르 수상 겸 외무상 안드라쉬는 비

스마르크에게 두 나라가 힘을 합쳐 로씨야와 맞서 싸우자고 주장하였으나 비스마르크는 이 주장을 완강히 반대하였으며 영국도 로씨야를 함께 반대하자는 오스트리아-마자르의 제의를 접수하지 않았다.

1872년 9월에 베를린에서는 오스트리아 황제 프란츠 요제프와 도이칠란드황제 윌헬름1세가 두 나라사이의 동맹조약체결문제에 관한 회담을 진행하게 되어있었다.

로씨야의 짜리는 비공식적경로를 통하여 이에 대한 소식을 알게 되자 불안감을 느끼었다.

도이칠란드황제와 비스마르크는 오스트리아황제의 도이칠란드방문시에 로씨야의 짜리도 베를린에 갈 의향을 표시하였다는 자기 나라 대사의 보고를 받고 이것을 세 나라의 동맹을 형성하기 위한 매우 적절한 기회로 인정하였으며 짜리를 초청하기로 하였다.

이리하여 1872년 9월 도이칠란드, 오스트리아-마자르, 로씨야 세 나라의 황제들이 베를린에 함께 모이게 되었다.

3황제동맹성립과정의 첫 단계는 로씨야와 도이칠란드사이의 군사협약체결이었다.

이 군사협약은 1873년 5월초에 도이칠란드황제 윌헬름1세의 뻬제르부르그방문시에 맺어졌다.

황제와 동행한 비스마르크는 오스트리아-마자르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이 협약에 재상 겸 외무상인 자기가 직접 서명하는것이 꺼리어 끝내 서명하지 않았다.

그의 의도는 협약의 정치적성격을 약화시키고 그것을 순수 군사실무적성격을 띤 문건으로 만들자는데 있었다.

그리하여 이 군사협약에는 도이칠란드군 참모총장 몰트케와 로씨야원수 베르그가 서명하였다.

협약은 즉시에 두 나라 황제들에 의하여 비준되었다.

협약 제1조에는 만약 어느 한 유럽강국

이 두 제국들중 어느 한 나라를 공격하는 경우에 이 나라는 가능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20만명으로 구성된 전투력있는 군대의 지원을 받게 될것이라고 규제하였다.

이렇게 협약은 체결되었으나 오스트리아-마자르의 신경을 자극하지 말자는 생각으로부터 비스마르크는 로씨야측에 이 협약은 오스트리아-마자르가 가담할 때에만 효력을 가질것이라는 조건부를 제기하였다. 이것은 프랑스를 고립시키기 위하여 도이칠란드가 로씨야와 오스트리아-마자르를 다같이 자기 편에 끌어들이려는 의도로부터 출발한것이였다.

3황제동맹형성의 첫 단계가 로씨야와 도이칠란드간의 군사협약체결이었다면 둘째 단계는 로씨야와 오스트리아-마자르사이의 협정체결이었다.

1873년 6월에 로씨야의 짜리 알렉산드르2세가 로씨야외무상 고르차코브를 데리고 원을 방문하였다.

짜리와 고르차코브는 오스트리아-마자르지배층들과 만나 그들을 이미 체결된 로도군사협약에 참가시키기 위한 설복공작을 하였으나 오스트리아-마자르측은 이를 거절하고 군사협약대신에 보다 온화한 내용으로 된 다른 협정을 체결할것을 제기하였다.

로씨야측이 오스트리아-마자르측의 제기에 동의함으로써 1873년 6월 6일 원교외의 슈브룬에서 두 나라사이의 협상적성격을 띤 협정이 조인되었으며 협정은 황제들사이의 합의의 형식을 취하였다.

1873년 6월 23일에 오스트리아-마자르와 로씨야사이에 체결된 협정에 도이칠란드가 가담할데 대한 문건에 윌헬름1세와 오스트리아-마자르황제 프란츠 요제프가 서명하였다.

오-로협정에 대한 도이칠란드의 가담은 3황제동맹형성의 셋째 단계로서 이 동맹의 형성을 결속하는 단계로 되었다.

결국 3황제동맹은 유럽에서 패권을 노린 도이칠란드통치배들의 목적과 끈질긴 침략적외교공작의 산물이였다.

3황제협정은 유럽에서 저마다 패권자의 지위를 노리는 령강들사이의 갈등을 일시적으로 무마시킨 타협적인 문건이였으며 세 나라 지배층들이 유럽나라들에서 일어나는 혁명운동을 탄압하는데서 공동보조를 취할것을 약속한 반동적인 문건이였다.

유럽3렬강이 조작한 3황제동맹은 유럽에서 패권을 노리는 제국주의렬강들간의 정치군사동맹을 위한 책동의 하나로서 그후 유럽에서 제국주의렬강들간의 모순과 대립을 격화시키고 전쟁의 위험성을 증대시키는 요인의 하나로 되였다.

그후 유럽에서는 보다 로골적인 제국주의적정치, 군사동맹인 3국동맹, 앙팡뜨와 같은 정치, 군사뿔력이 출현하였으며 전반적 국제정세는 더욱더 격화되기 시작하였다.